

2015년 8월 인양업체 선정... 침몰 1073일만에 모습 드러내

세월호 1095일... 침몰에서 육상 거처까지 3년의 기록



세월호 3년의 기록

- 2014년**
 - 4.16 세월호 침몰
 - 10.28 295번째 사망자 시신 수습
 - 11.11 정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공식 발표 미수습자 9명
- 2015년**
 - 1.12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
 - 4.22 정부, 세월호 인양 결정 공식 발표
 - 8.4 해수부, 인양업체로 상하이 셸비지 컨소시엄 최종 선정
 - 11.12 이 선장 무기징역 확정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형 확정
- 2016년**
 - 3.31 해수부, 세월호 선체 무게 줄이는 작업 시작
 - 6.12 세월호 인양 핵심작업 선수 들기 공정 착수
 - 8.29 해수부, '객실 직립 방식' 추진 결정
 - 10.31 해수부, 세월호 작업방식 변경 발표 선미 리프팅빔 설치
 - 11.11 인양방식 '해상 크레인' → '잭킹바지' '플로팅 독' → '반잠수식 선박'으로 결정
- 2017년**
 - 3.14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3.22 세월호 참사 1072일째, 시험 인양 성공. 본인양 시도
 - 3.25 반잠수식 세월호 선적, 마침내 세월호 선체 수면 위로
 - 3.31 세월호 육지 향해 마지막 항해 시작 목표선상만 접안 완료
 - 4.1 육상 이송 위한 배수작업 시작
 - 4.3 세월호 선체 팻·배수작업 주력... 무게 줄이기 '난관'
 - 4.5 반잠수식 방황 90도 돌려 선미 접안 완료
 - 4.8 모듈트랜스포터 600축 세월호 선체 밑 거처 세월호 육상 운송 위한 3차 테스트 성공
 - 4.9 세월호 목표선상 철재부두 이송 세월호 육상거처 성공

정부, 참사책임 물어 해경 해체

지난해 11월 인양 방식 변경

우여곡절 끝 11일 목표선상 거처 완료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95일이 지났다. 그동안 세월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수색여행을 나선 학생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9명 총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2014년 4월15일 오후 9시 인천항을 출발, 다음날 오후에 제주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월호는 다음날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하며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진도 맹골수도의 수중작업이 예상보다 복잡한 탓에 지난해 11월11일 인양 방식을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독이 아닌 잭킹바지선 2대와 반잠수식 선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셸비지는 수차례 시도 끝에 12월25일 선수 23개, 선미 10개 등 총 33개의 리프팅빔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진도 맹골수도의 수중작업이 예상보다 복잡한 탓에 지난해 11월11일 인양 방식을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독이 아닌 잭킹바지선 2대와 반잠수식 선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셸비지는 수차례 시도 끝에 12월25일 선수 23개, 선미 10개 등 총 33개의 리프팅빔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인양작업을 마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소조기인 22일 세월호를 수중에서 1m 들어올리는 첫 시험인양을 시도했고, 들어올리기에 성공함에 따라 곧바로 인양에 돌입했다. 결국, 세월호는 지난달 23일 새벽 3시45분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는 이어 24일 오후 4시55분께 잭킹바지선 2대에 묶여 사고해역에서 3km 떨어진 반잠수식 선박에 무사히 도착했다. 25일 오후 9시15분께엔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부양해 세월호 선체 전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양된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105km 떨어진 목표선상 철재부두에 지난달 31일 접안한 뒤 육상을 거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4월 6일에는 세월호를 육상에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월호 무게를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세월호 무게를 줄이고자 선체에 구멍을 뚫는 등 비상 대책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고민 끝에 리프팅빔을 연장하고 모듈 트랜스포터를 456축에서 600축으로 늘려 세월호를 들어올렸다.

성공도 잠시, 세월호 거처를 위한 육상 이송 중 선체에 변형이 온 것이 발견되면서 해수부는 세월호를 있는 위치 그대로 거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20분 모듈 트랜스포터의 유압을 줄여 세월호를 받침대 위에 내려놓았고, 세월호 밑에 있던 모듈 트랜스포터를 모두 꺼내면서 세월호 육상거처 작업이 마무리됐다. 세월호는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12일, 광주 조대여고에서 '노란 리본 물결 만들기' 행사가 열렸다. 학생과 교사들은 이날 노란 리본에 '잊지않을게, 기억할게'를 적어 운동장에 내걸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2 | 해질 19:04 | 달뜨기 21:47 | 달지기 07:55

미세먼지 주의!

구름이 많겠고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9/22	보성	구름많음	3/20
목포	구름많음	11/19	순천	구름많음	7/20
여수	구름많음	10/19	영광	구름많음	9/19
나주	구름많음	6/21	진도	구름많음	6/19
완도	구름많음	9/20	전주	흐림	10/20
구례	구름많음	3/21	군산	가끔호리고비	8/18
강진	구름많음	6/21	남원	흐림	4/21
해남	구름많음	4/20	홍산도	구름많음	9/18
장성	구름많음	5/20			



바다 날씨

지역	해면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2.0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5	남~남서	1.0~2.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5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1.0~2.0	남~남서	1.5~2.5
	앞바다(서)	남~남서	1.0~2.0	남~남서	1.5~2.5

생활지수

- 주요: ☔
- 식중독: ☀
- 보통: ☀
- 자외선: ☀
- 낮음: ☀
- 피부질환: ☀

돌때

목포	간조		만조	
	09:13	21:18	04:05	16:04
여수	04:42	16:39	10:44	23:09

주간 날씨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	☔	☔	☔	☔	☔	☔
11/19	11/26	14/17	10/19	9/22	11/22	12/21

진정사건 실제 권리구제율 23.6%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정신보건·교정시설 748건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해 처리한 진정사건의 실제 권리구제 비율이 23.6%로 나타났다. 광주인권사무소는 13일 2016년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처리한 진정사건 926건 중 위원회가 진정취소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각하사건(540건)을 제외하면 권리구제(인용·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 비율은 91건으로 23.6%를 차지했다. 조사결과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기각사건은 346건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 58.4%를 기록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신보건시설 519건, 교정시설이 229건으로 사건 처리가 가장 많았다.

또,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해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처리한 주요 인권사건 사례 중에는 장애를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지자체, 대학교수에게 서명을 강요한 대학, 환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한 정신병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까지 CCTV로 촬영한 정신병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00년 교통사고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장애를 입었다. A씨는 2016년 4월 모 시군의 환경미화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까지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했다. 이후 다시 해당 시군의 추가 채용에 응시했지만 '손가락 장애로 본인과 동료의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채용력 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2월 반복적인 자살 시도, 살해위협 등을 이유로 정신과 입원했다. 보호실에 격리조치된 B씨는 내부에 따로 화장실이 없어 이동식 변기에 소변을 봤다. 이런 장면은 보호실 내에 설치된 CCTV에 찍혀 간호사실에 노출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전문의기자 ej6621@kwangju.co.kr

3주기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촛불집회

내일 오후 7시 금남로

세월호 3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광주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21차 광주시국촛불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촛불집회는 세월호 참사 3년 추모행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행진 없이 진행되며 평소와 다르게 오후 6시가 아닌 1시간 늦게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학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이후 3주 만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세월호의 온전한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사드배치 철회 ▲부역자 처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기각 비판 ▲적폐청산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같은 날 목포와 여수 등 전남 9개 시·군에서도 세월호 추모문화제가 동시에 개최된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퇴근길 버스 방화범 징역 10년 중형

퇴근길 만원 버스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3일 '현존 자동차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6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퇴근길 버스에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는데도 방화를 시도했다"며 "버스 운전기사 한 분이라도 팔았다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6시 33분께 여수시청 앞 정류장에서 승객 40여 명이 탄 버스에 미리 준비한 17ℓ 들이시너 2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객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임로 392(월곡2동 679-3)